

가쓰시카 시바마타는 일본인들의 마음의 고향

야마다 요지 감독과 제작진들은 당시 스토리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도쿄 근교의 모든 후보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좀처럼 이미지에 딱 맞는 장소를 찾지 못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도착한 곳이 바로 풍부한 자연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삶이 숨 쉬는 마을, 가쓰시카 시바마타였습니다. 이후, 영화에서는 모든 작품 시리즈를 그곳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3일, 가쓰시카 시바마타가 도쿄도내에서 처음 국가 중요 문화적 경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쓰시카 시바마타의 문화적 경관'은 지역 사람들의 생활, 역사, 풍토 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전통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계승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경관지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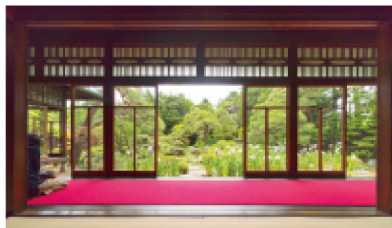
가쓰시카 시바마타는 풍부한 자연과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마을

도쿄 북동부, 에도가와강 인근에 있는 가쓰시카 시바마타는 물과 녹음, 변화의 운치 있는 분위기가 조화로운 모습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시바마타 다이샤쿠텐이라는 사원과 참배길입니다. 시바마타 다이샤쿠텐의 정식명칭은 교에이진다이묘지이며, 액막이, 장수, 장사 번창 등에 영험했다고 합니다.

다이샤쿠텐에 있는 것이 다이쇼 시대 말기부터 쇼와 시대 초기에 걸쳐 증개축된 근대식 일본 건축인 '야마모토테이'. 쇼인즈쿠리라는 건축 양식으로 지은 화실과 현대적인 서양식 방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저택입니다. 녹음이 가득한 전형적인 쇼인 정원이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뒤편에 있는 에도가와강 제방을 올라가면 수면 위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반겨줍니다. 이 부근은 가쓰시카구가 '시바마타 공원'으로 정비한 지역입니다. 하천 부지에서 아구를 즐기는 아이들의 함성 끝에 보이는 것이 '아기리노와타시'입니다. 이토 사치오의 명작 '들국화의 무덤'의 한 장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연인들이 헤어져 아련한 배경 장소로 유명합니다. 아득히 먼 건너편 강가에 펼쳐진 마쓰도시와 이치카와시 구릉 지대의 전망을 감상하면서 강의 흐름을 따라 올라가면 도쿄도내에서 유일하게 수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미즈모토 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만 아는 '시바마타 시치후쿠진'도 놓치면 안 됩니다. 7개의 절을 도보 1시간 안에 한번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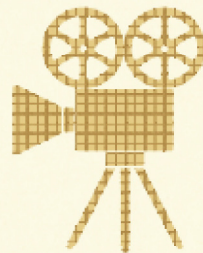


시바마타 다이샤쿠텐
다이묘지로 가는
다이샤쿠텐 참배길

가쓰시카 시바마타

도라상 기념관

야마다 요지 뮤지엄



'남자는 괴로워' 란

'남자는 괴로워'는 TV 드라마로 시작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동경했던 노점상에 대한 추억담을 생생하게 묘사한 아쓰미 기요시의 모습에 매료된 야마다 감독이 이미지를 확대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방랑객 도라, 언제나 그런 오빠를 걱정하는 여동생 사쿠라, 참배길에서 당고 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와 아줌마, 이웃 사람들이 빛어내는 서민 동네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드라마의 최종회에서 '방랑객 도라가 뱀에 물려 죽는다'는 내용으로 끝나자, 방송국에 항의가 쇄도. 이에 감명을 받은 야마다 감독이 영화화를 기획했고, 이듬해인 1969년 8월에 영화 '남자는 괴로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까지 특별편을 포함한 49개의 작품을 제작하여 국민적인 인기 시리즈로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